

시조·가사에 나타난 정동의 몇 국면에 관한 시론

-〈훈민가〉, 〈덴동어미화전가〉, 사설시조 몇 수를 중심으로-

박영민*

〈차 례〉

1. 관계 속의 삶과 정동의 자율성
2. 정동 전염과 공동체 감각 : 〈훈민가〉
3. 사회적 유대와 강제된 불행 : 〈덴동어미화전가〉
4. 추동된 신체와 형언할 수 없음 : 사설시조 몇 수
5. 정동적 읽기와 부단한 다시 쓰기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해진 정동 연구가 시조와 가사를 다시 읽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탐구한 시론적 연구이다. 정동 연구는 운동과 사유가 분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신체, 관계 속에서 다른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용되는 삶 자체에 주목한다. 아울러 정동과 정서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는데, 정서가 의식의 작용을 거쳐 체계적으로 인지된 신체 반응이라면 정동은 아직 명명되지 않은 낱것의 감각이다. 이러한 정동은 비의식적이며 형언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율성을 지닌다.

〈훈민가〉는 강원도 관찰사였던 송강 정철이 이상화된 신체의 목소리와 움직임 등을 강원도 백성과 공유하려 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동 전염을 통해 신체들 사이의 동화를 유도하고 공동체 감각을 형성하려는 전략이 내재한다. 이를 통해 백성을 관계 속에서 사유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는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희의 가치와 규범에 의해 정향된 정동은 그 무한한 잠재성이 봉인된 감각, 즉 공동체 내에서 허용된 정서를 포착할 뿐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놀이라는 사회적 유대 안에서 청춘과부가 겪은 정동적

* 한국방송통신대 부교수

사건을 다룬다. 눈물과 콧물로 표현된 청춘과부의 비의식적 긴장 상태는 관계의 충돌을 생생히 재현한다. 그러나 덴동어미의 경험이 '수절-옳음/개가-그름'이라는 코드로 재편되면서 청춘과부의 정동은 억압되고 그의 미래는 불행으로 강제된다. 개가를 금지하는 이념이 동일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정동의 불확실성보다는 고착된 규범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유대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사설시조 중에서는 세계와의 관계, 즉 다른 신체와의 마주침에 의해 추동된 신체의 변용을 재현한 텍스트가 발견된다. 그런데 해당 텍스트는 의식에 선행하는 몸이나 추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등을 순간적으로 펼쳐들 뿐이어서 그 안에 나타난 신체와 정동은 무엇이라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느새 '전근대/근대' 등 이분화된 코드에 익숙해졌지만, 사설시조에 포착된 정동적 국면이 과연 그러한 코드로 고착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정동적 읽기와 정서적 읽기를 구분한다. 정서적 읽기가 이행과 변이를 봉인하고 고착시킨다면, 정동적 읽기는 무한히 변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긍정하며 체계와 질서 너머의 것을 찾는다는 데에 주목한 것이다. 그런데 정동적 읽기는 형언하기 어려운 무엇에 닿고자 하므로 무엇도 단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쓰는 노력을 요청한다. 이로써 억압되고 숨겨지고 사라진 것에 점근(漸近)하여 시조와 가사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정동, 정동의 자율성, 정동적 읽기, 훈민가, 덴동어미화전가, 사설시조

1. 관계 속의 삶과 정동의 자율성

이 논문은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도 활발해진 정동(affect) 연구가 과연 시조나 가사를 다시 읽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물으면 정동 이론이 문학 연구의 구체적 방법을 정립한 듯하겠으나, 정동 연구에서는 대상을 망라하여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보편적 체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한다. 주지하듯 정동 개념은 세계와 마주할 때 일어나는 신체의 즉각적 반응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동은 순간적이며 붙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언어로 분석되거나 개념으로 종합될 경우, 우리는 도리어 정동 그 자체와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정동 연구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정동적 마주침의 역사일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정동의 자취를 밟아갈 수 있을 따름이다.¹⁾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정동의 국면을 고찰하여 정동적 읽기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본고의 논의도 정동의 자취를 더듬어 가는 맥락에서 전개될 것이라 예상된다.

정동 연구는 ‘정신/신체’ 이원론을 배격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스피노자는 그 초석을 다진 인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정신과 신체를 하나의 실체가 지닌 두 가지 속성이라 보았다.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임을 밝히면서 신체의 활동이나 변용이 오히려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당대의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²⁾ 여기에 따르면 정신과 신체는 더 이상 단절되지 않으며 신체의 변용과 정신의 관념은 평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의 활동과 변용, 즉 움직이며 사유하고 사유하며 움직이는 살아 있는 삶 자체를 더욱 주목할 수 있다. 나아가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 안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서로 마주치고 교차하는 내재적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다.³⁾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역동하고 변화한다는 뜻이다.

정동은 이와 같은 세계관 위에 정초된 개념으로,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이자 변용에 대한 관념으로 정의된 바 있다.⁴⁾ 이러한 정의에 따

1) 알리 라라, 「정동 연구 지도 제작」, 알리 라라 편, 『정동 연구 지도 제작』, 권명아 옮김, 갈무리, 2025, 31~38쪽.

2) B.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2007, 96쪽.

3)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옮김, 민음사, 2001, 103; 181~183쪽.

르면 정동이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충돌이자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다른 무엇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만큼 멈추지 않고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힘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 발생하는 이행과 변이는 때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과 강도로 펼쳐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동은 하나의 신체와 다른 신체, 즉 어떤 존재와 세계 사이의 이처럼 모호하고 뒤섞인 마주침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이해된다.⁵⁾

한편, 근래의 신경과학 연구는 정신 작용에 선행하는 비의식적 신체 반응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논한 정동 개념과 상응한다. 이 연구는 인간을 움직이고 관계 맺고 반응하는 유기체로 바라보는데, 유기체가 어떤 대상과 관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신체의 즉각적 반응이라고 한다. 도리어 의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늦게 구축되며, 의식의 작용은 세계에 대한 다양한 반응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정서(emotion)와 의식(consciousness)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곧 정서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자동적이고 비의식적인,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반응 패턴이라면 의식은 정서를 지속적으로 지도화하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⁶⁾ 그런데 그 기준은 다시 정서와 정동을 가르는 단서로 작용한다.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정서 개념은 비의식적 신체 반응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정동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생존을 위한 유기체의 자동적 반응이라는 보편적 기제에 초점을 두므로 둘 사이의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동 연구는 의식의 작

4) B. 스피노자(2007), 앞의 책, 153쪽.

5) 그레고리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14~16쪽.

6) 안토니오 다마지오, 『느낌의 발견』, 고현석 옮김, 아르테, 2023, 47~49; 82~85; 238~242쪽.

용을 거쳐 체계적으로 인지된 정서와 아직 명명되지 않은, 미분화된 정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동 연구는 신체가 지닌 능동성, 마주침이 주는 강렬함, 멈출 수 없는 긴장, 삶의 불확정성과 변화 가능성 등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동은 전의식(前意識)적인 것, 비의식(非意識)적인 것, 혹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⁷⁾ 다시 말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울림과 날것의 감각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상에 따르면 정동은 관계에 따라 무한하게 변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환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서는 경험과 습관, 기억과 사고 등에 기반하여 정동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거나 표현한다.⁸⁾ 곧 정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정동의 그 잠재적 공존 상태를 제한하고 압축하여 범주화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과도(果刀)를 능숙히 다루어 온 습관과 기억은 그것에 대한 편안함 내지 만족감을 형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일상에서 과도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신체와 과도 사이의 영향 관계와 그에 따른 변용이 갖는 강도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과연 늘 쓰던 과도라 하여 살갓을 파고드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까. 따라서 정서는 정동의 어떤 순간, 즉 하나의 경험을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정하는 의식의 작용이라 정의되기도 했다.⁹⁾ 정서는 이행과 변이를 봉인하는, 분명하되 고착되는, 틀에 박힌 어떤 관념이다.

정리하자면 정동 연구는 운동과 사유가 분리되지 않은,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의 신체, 다시 말해 살아 있는 삶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아울러 세계와 마주치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행과 변이 및 때로

7) 브라이언 마수미, 『가상계 -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1, 50~61쪽.

8) 안나 김스, 『정동 이후 - 공감, 동화 그리고 소통』,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2015), 앞의 책, 307쪽.

9) 브라이언 마수미(2011), 앞의 책, 54쪽.

는 형언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을 것처럼 여겨질 만큼 비-의식적인 정동의 자율성을 부각한다. 그런데 이는 문학 연구가 텍스트에 재현된 정서를 언어로 옮기는 데에만 천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성찰의 단서를 제공한다. 곧 텍스트에 나타난 정동적 국면을 언어로 고착하는 논리에 따라, 지금껏 축적된 경험과 습관, 기억과 사고 등이 허용하는 논리에 따라 텍스트를 읽어 오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다. 만일 시각을 바꾸어 관계 속의 삶이나 정동의 자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시조나 가사도 다시 읽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은 위에서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여기에서는 관계 속의 삶이나 정동의 자율성을 논의할 만한 단서를 담고 있는 시조와 가사를 선별한 뒤 텍스트에 남은, 아직 명명되지 않은 정동의 자취를 밟아나가려 한다. 이로써 시조·가사에 대한 정동적 읽기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선정된 대상이 <훈민가>와 <덴동어미화전가> 및 사설시조 몇 수이다. 한편, 정동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정서를 도외시한다는 뜻은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다만 어떤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지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텍스트가 지닌 잠재성을 열어젖히는 접근 방식을 도모하는 데에 의도가 있을 뿐이다.¹⁰⁾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상 텍스트를 다시 읽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정동 전염과 공동체 감각 : <훈민가>

<훈민가(訓民歌)> 16수는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1580년(선조 13) 정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강원

10) 제이슨 림, 『퀴어 비평과 정동의 정치학』, 캐스 브라운·개빈 브라운·제이슨 림 편, 『섹슈얼리티 지리학』, 김현철 외 옮김, 이매진, 2018, 126쪽.

도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지었다고 알려진 연시조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훈민가>가 직접 거론된 것은 두 차례인데, 두 가사는 모두 백성을 감발하게 하는 효용성에 주목했다. 『경민편(警民編)』과 <훈민가>를 합편하여 <훈민가>를 보급하는 데에 일조한 이후원(李厚源, 1598~1660)이 그 효용성을 강조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1770년(영조 46) 1월 14일 한익모(韓翼謨, 1703~1781)는 영조에게 “그 내용은 백성의 일상생활과 평범한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시골의 부녀자와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외우게 하여 감발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따라서 선학들은 <훈민가>가 백성을 감발하게 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고찰해 왔다.¹¹⁾

네 아들 효경 님더니 어도록 비환느니
 내 아들 쇼혹은 모리면 므출로다
 어니 제 이 두 글 비화 어덜거든 보려뇨 <『松江歌辭』(李選本), #007>¹²⁾

선행 연구가 이 시조에 주목한 점은 교화(教化)의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네 아들이 『효경(孝經)』을 어디까지 배웠는지 묻고 내 아들은 『소학(小學)』을 모레면 마친다고 말한다. 마땅히 공부해야 한다는 훈계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들을 가진 나와 나의 관심이 일치하는 父性的 자리만”이 전경화될 뿐이다. 이로부터 <훈민가>는 백성의 절실한 인간관계를 설정한 뒤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어휘로 다룬 텍스트라는 해석이 도출된다. 백성들 사이를 관류하는 인정 어린 어휘를 통해 감화의

11) 필자는 <훈민가>의 담화 특성을 분석하여 그 감화 전략을 고찰한 바 있다. 본 장에 제시된 해석은 해당 논문에 바탕을 두되 정동적 읽기의 측면에서 <훈민가>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쓴 것이다. 박영민, 「정철 시조의 담화 특성과 전승 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35~149쪽.

12) 鄭澈, 『松江歌辭』(李選本), 대제각 영인, 1988. <훈민가> 원문은 이 책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되, 작품 번호는 ‘송이#000’과 같은 형태로 표기하고자 한다.

효과를 높였다는 뜻이다.¹³⁾ 나아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이 시조는 독자를 서정적으로 사로잡아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노래로 논의되기도 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훈민가>가 지닌 서정성이야말로 교훈성을 실현하는 근간이 된다.¹⁴⁾

이상에 비추어 본다면 백성의 절실한 관계를 설정한 점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점은 <훈민가>가 백성을 감발하게 하는 동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러한 논의는 오랫동안 <훈민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훈민가>가 백성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 교훈을 실천하게 한 노래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¹⁵⁾ 그런데 절실한 관계와 간절한 마음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감발하거나 파문이 이는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감발하는 것이나 파문이 이는 것은 정동 개념과 공명하는 면이 있다. 전자는 느낌이 일어(感) 행위로 발현(發)되는 신체의 반응 패턴을 가리키고 후자는 그 울림이 퍼져 나가는 과정을 은유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며 <훈민가>가 백성을 감발하는 방식을 되짚어 본다면 위에서 제기한 물음에 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풀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디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
 향음쥬 다 파흔 후에 뵈셔 가려 호노라 <송이#009>

오늘도 다 새거다 호의 메오 가자스라
 내 논 다 밋여든 네 논 점 밋여 주마
 올 길히 썩 빠다가 누에 먹켜 보자스라 <송이#013>

13)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162~165쪽.

14) 김열규, 「한국시가의 서정의 몇 국면」, 『동양학』 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2, 93쪽.

15) 김태웅, 「위계담론으로서 <훈민가>의 전승과 유통 방식」, 『인문과학』 9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송이#009는 오륜(五倫)의 한 덕목인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관찰사로서 정철 자신의 목소리는 감추어져 있고 웃어른을 봉양해야 하는 아랫사람이 화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장유의 질서를 구체적 행위로 표상하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웃어른은 몸을 일으키기 위해 아랫사람의 팔목을 잡고 출타하고자 몸을 움직이며, 향음주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행위로 표상된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랫사람은 두 손으로 받쳐 뒷받침하고 지팡이를 들고 따르며 주연(酒宴)이 과하기를 기다려 모시고 돌아올 것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화자의 진술은 웃어른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결국 행위를 중심으로 맺어진다는 인식을 환기한다. 윤리적 덕목, 즉 관념의 문제를 행위와 실천의 문제로 재해석한 것이다.

송이#013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백성을 가르치는 엄격한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고 이웃에게 말을 거는 농부의 목소리가 제시될 뿐이다. 초장에서는 날이 섰으니 호미를 메고 들로 나서자며, 중장에서는 내 논을 다 매면 네 논도 함께 매어 주겠다고, 종장에서는 오는 길에 빵잎을 따다가 누에를 먹여 보자며 말을 걸었다. 이처럼 이 시조는 청자를 향한 전언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어떤 가치나 덕목을 직접 전하지 않았다. 단지 근면하게 일하면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기 일도 고될 텐데 다른 이를 도우려는 농부의 삶을 표상했다. 따라서 송이#013은 “무타농상(無惰農桑)”, 즉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덕목을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농부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이웃에게 말을 건네는 농부의 목소리는 육체성을 획득한다.

어와 더 죽어야 밥 업시 었디 홀고

어와 더 아자바 옷 업시 었디 홀고

머흔 일 다 닐러스라 돌보고져 호노라

<송이#011>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엇찌니 돌히라 무거을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지물조차 지실가

<송이#01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훈민가>가 백성의 절실한 인간관계를 설정했다는 것은 어떤 가치나 덕목, 즉 관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삶 자체를 형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용한 두 시조도 곤경에 처한 이웃과 친척이 서로 마주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낸 사례이다. 송이#011은 숙질 관계를 노래한 시조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여기에서 아저씨는 조카의 처지를 헤아려 먹을 것을 걱정하고 조키는 아저씨의 처지를 헤아려 입을 것을 염려한다. 그리고 초장의 “밥”과 중장의 “옷”은 종장에서 “머흔 일”로 수렴하는바,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운 일 모두를 돌보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나아가 아저씨의 말로도, 조카의 말로도 들리는 종장의 진술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을 함축한다. 이처럼 서로를 헤아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어려울 때 친척 간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덕목을 체감하도록 했다.

송이#016은 “반백자불부대(斑白者不負戴)”, 즉 노인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덕목을 다룬 시조이다. 앞에서 논의한 텍스트처럼 규범적 실천을 직접 호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덕목을 실천해야 할 젊은이를 화자로 내세운 점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젊은 “나”가 “이고 진 더 늘그니”와 조우하여 말을 건네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은 젊어서 돌이라도 무겁지 않으니 짐을 풀어 자기에게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늙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짐까지 져서 되겠는가 하고 “더 늘그니”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다. 해당 덕목과 관련하여 있을 법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거리에서 마주한 노인인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는 젊

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전언의 대상, 즉 청자가 되어야 할 법한 젊은 “나”를 화자로 내세운 배경은 무엇일까.

정리하자면 <훈민가>는 이웃이나 친척 등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삶을 꾸려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어떤 가치나 덕목을 직접 훈계하지 않고 관계 속의 삶을 재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관계 속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어떻게 백성을 감발하게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관한 단서는 “모방 소통”, 즉 미메시스가 일차적으로 신체를 매개로 한 모방일 수밖에 없고 문학적 재현도 궁극적으로 신체의 모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체, 즉 표정과 목소리, 자세 및 움직임 등은 타인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을 공유하는 일은 관련된 이들을 정서적으로 수렴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동 전염”에 따라 신체와 신체 사이의 연결, 나아가 동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¹⁶⁾

이러한 논의는 텍스트 밖으로 눈을 돌려 <훈민가>가 그 내포 독자인 강원도 백성과 맺는 관계를 주목하게 한다. 텍스트 안에 재현된 관계 속의 삶과 텍스트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은 신체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백자불부대를 표상한 송이#016은 젊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시조이다. 하지만 정철은 젊은 “나”를 화자로 내세워 도리어 그가 짐을 진 노인을 향해 말을 건네게 했다. 이로써 텍스트 안의 젊은 “나”와 텍스트 밖의 젊은 나, 즉 돌조차 무겁지 않을 만큼 강건한 신체를 지닌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전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한 젊은 “나”를 화자로 내세움으로써 텍스트 안팎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 자세와 움직임 등을 공유할 여지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강원도 백성이 정서적으로 수렴되는 정동 전염의 가능성이 확보된다.¹⁷⁾

16) 안나 김스(2015), 앞의 책, 305~307쪽.

17) 오영창은 <훈민가>가 개인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화자를 내세워 감화력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훈민가>는 마음을 다하여 웃어른을 섬기는 아랫사람의 신체, 부지런히 일하며 상부상조하는 농민의 신체, 서로의 궁핍한 처지를 돌보려는 숙질의 신체, 노인의 심정을 헤아려 짐을 대신 드는 젊은이의 신체 등을 강원도 백성과 공유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훈민가>는 더욱 근원적인 층위에서 신체를 공유하기도 한다. 송이#002에서 “형아 아인야 네 슬흘 먼저 보와 …(중략)… 혼 젓 먹고 길러나이셔 닷 밍을 먹디 마라”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젓과 살이 표상하는 생물학적 신체와 그에 대한 감각을 공유했다. 같은 젓을 먹고 자란 형제의 몸이라는 보편적 신체 감각을 환기함으로써 형제간에 우애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훈민가>가 관계 속의 삶을 재현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신체를 강원도 백성과 공유한 것으로 다시 새길 수 있다.

본 장을 시작할 때 백성의 절실한 관계와 간절한 마음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감발하는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했다. 이상에 따르면 그 작용은 인정 어린 마음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체와 강원도 백성을 마주 서게 한 데에서 출발한다. 그 덕분에 강원도 백성은 <훈민가>를 외우며 어른이 팔목을 쥐면 두 손으로 받쳐 뒷받침하는 저 아이의 행동이나 자기 일도 고될 텐데 다른 이를 도우려는 저 농부의 목소리에 관한 관념을 갖게 된다. 나아가 어떤 관념이 형성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돌보려는 저 숙질이나 노인의 어려움을 돌보려는 저 젊은이처럼 상대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저들과 같은 표정을 짓고 같

는 데에 주목했다. “한 명의 백성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우월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진술”했다는 것이다. 독자는 이처럼 화자 자신을 향하는 발화, 즉 “대상의 체험”이라는 내적인 발화를 엿듣는 입장”에 서는데, 그 덕분에 화자와 독자가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평적 관계를, 신체와 신체가 마주 서는 관계로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영창, 「장르지식으로서 정철 <훈민가>의 진술방식 연구」, 『새국어교육』 142, 한국국어교육학회, 2025, 304쪽.

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다. 이렇듯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이에 시나브로 그 표정과 목소리, 자세와 움직임 등을 모방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백성을 감발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아닐까.

따라서 정철이 <훈민가>를 지을 때 관계 속의 삶을 재현한 의도는 텍스트 자체가 정동적 효과를 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논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 관념 → 신체 변용 → 정동적 동요’로 이어지는 정동적 연쇄에 주목한다.¹⁸⁾ 이와 같은 연쇄는 감발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 준다. 아울러 그 과정이 생성하는 <훈민가>의 정동적 효과는 강원도 백성을 정서적으로 수렴하는 것, 정동 전염에 따라 그들을 하나로 잇는 동화일 것이다. 그렇다면 <훈민가>에 재현된 신체는 강원도 백성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할 하나의 이상화된 신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체현하고 있어 닮아가야 하는 신체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처럼 이상적인 신체를 공유한다는 관념은 강원도 백성의 자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즉 공동체 감각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관찰사로서 송강 정철은 강원도 백성이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내면화하도록 하고자 <훈민가>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적 삶이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유교 윤리에 근간을 둔다. 그래서 <훈민가>의 정동 효과는 그 무한한 잠재성을 펼쳐 놓지 못한다. 유학의 규범과 질서에 절합되어 특정 방향을 향할 따름인 것이다.¹⁹⁾ 이를 정동이 정향(定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정향된 정동은 공유된 감각과 허용

18) 조강석, 「정동적 문학 읽기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312~315쪽.

19) 로렌스 그로스버그는 정서를 정동이 이데올로기와 절합된 결과라고 본다. 곧 정서는 어떤 정동적 생산물을 이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시도라는 것이다. 로렌스 그로스버그, 「정동의 미래 - 현실태 속의 잠재태 되찾아 오기」, 델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위스 편(2015), 앞의 책, 496쪽.

된 정서를 재생산하여 일상을 통제하는 데에 일조한다. 그러므로 <훈민가>는 백성을 관계 속에서 사유하고 움직이는 살아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성취와, 관계에 따라 변용될 수 있는 정동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니는 텍스트이다. 관찰사 백성이라는 코드에 의해 제한되어 삶의 자율성을 노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3. 사회적 유대와 강제된 불행 : <덴동어미화전가>

<덴동어미화전가>는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대 비봉산 자락에서 벌어진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가사이다. 화전가의 일반적 형식 속에 덴동어미의 사연이 담겨 있는 액자식 구조로 분석되는데, 화전가를 이루는 제반 요소가 덴동어미의 인생 역정을 중심에 두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²⁰⁾ 화전놀이가 시작된 뒤 청춘과부가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은 자신의 설움을 토로하자 덴동어미가 썩 나서며 청춘과부를 위로하고, 덴동어미의 인생 역정이 펼쳐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구성원들이 화전놀이 현장을 연대와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선행 연구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하층 여성의 삶, 운명론에 반영된 세계 인식과 주제 의식, 화전놀이의 의의와 여성들의 연대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덴동어미화전가>를 고찰해 왔다.²¹⁾ 이렇듯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덴동어미화전가>는 관찰사와 백성 사이에 놓인 코드에 따라 정향된 정동을 보여 준 <훈민가>와 다른 양상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20)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 <덴동어미 화전가> -」,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763~773쪽.

21) 최은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연구성과 및 현대적 의미」, 『국학연구논총』 18, 태민국학연구원, 2016, 137~141쪽. <덴동어미화전가>에 관한 연구 성과는 이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텐동어미는 한 번의 혼인과 세 번의 개가를 모두 사별로 마쳐야 했던 기구한 삶의 주인공이다. 반복된 고난을 딛고 달관에 이른 그녀의 생애는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며, 그 인생 역정은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인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산한 인생 역정을 술회한 끝에 텐동어미는 자신이 깨달은 운명론을 설파하며 개가를 만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개가를 금하고 수절을 권하는 것은 결국 당대의 통념으로 회귀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²²⁾ 운명론에 반영된 세계 인식과 주제 의식이 하나의 논점이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가를 말리며 수절을 권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부장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생을 설계할 것을 권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²³⁾ 나아가 현재의 불행을 애써 만회하려 들 필요 없이 ‘자연스러움에 내맡긴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했다고 보아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²⁴⁾ “본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의 운명론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음”의 운명론으로 전환된다고 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 있다.²⁵⁾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는 여성 연대의 장으로서 화전놀이의 의의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⁶⁾ 텐동어미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극복의 서사를 공유하여 청춘과부를 비롯한 못 여성에게 위로를 건네며, 그녀들의

22) 정홍모, 「〈텐동어미 화전가〉의 세계인식과 조선후기 몰락 하층민의 한 양상」, 『어문논집』 30, 안암어문학회, 1991, 93~97쪽.

23) 박경주, 「〈뉘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여성 의식의 변화 양상 고찰」,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9, 176~178쪽.

24) 고정희, 「〈뉘동어미화전가〉의 미적 특징과 아이러니」,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2003, 326~332쪽.

25) 이재준, 「〈텐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세계인식과 그 의미」, 『한국문화과예술』 23,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7, 129쪽.

26)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고정희, 「더 늙은 여성’의 치유: 〈텐동어미화전가〉와 〈브루스터플레이스의 여자들〉의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2.

위안과 흥취는 다시 덴동어미 자신의 치유를 완성하는 데에 일조함으로써 유대 관계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덴동어미의 자기 술회에서 개가를 금하고 수절을 권하는 언술이 지나치게 도드라진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물론 그녀가 설파한 운명론이 신산한 삶과 깊은 성찰에 근간을 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쨌든 “덴동어미의 말은 개가는 절대 금물이라는 주장이고, 그런 말로 청춘과부의 개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강요에 가까운 말이 되”기 때문이다.²⁷⁾ 아울러 덴동어미의 인생 술회가 결국 청춘과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한 설득의 언술이라면,²⁸⁾ 청춘과부는 그 언술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춘과부와 덴동어미의 관계를 정동의 측면에서, 조금은 청춘과부에 가까운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가세 가세 화전을 가세 쏫 지기 전의 화전 가세 // …(중략)… // 이른 썩乙
일치 말고 화전노름 하여 보세 // 불출문의 헝다가서 소풍도 흐려니와 //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 잇게 노라 보세 // 웃던 부인은 맘이 커져 가로 혼 말 퍼니
노코 // 웃던 부인은 맘이 즈겨 가로 반 되 썩니 주고 // 그렇저렁 줘어 모니
가로가 닷말가웃질니 <덴동어미화전가>²⁹⁾

주지하듯 조선 후기의 화전놀이는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억압적인 일상에서 그나마 일 년에 한 번씩 숨통을 틔운 공식적 나들이였다. 양반가의 여성이 주된 향유 집단이었고 친목과 유희를 도모하는, 축제적 성격을 지

27) 김대행, 「『덴동어미 화전가』와 팔자의 원형」,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하)』, 태학사, 2000, 337쪽.

28) 주재우, 「설득의 수사학으로 <덴동어미화전가> 읽기」, 『청람어문교육』 86, 청람어문교육학회, 2022, 102쪽.

29) <덴동어미화전가> 원문은 “이정옥 주해, 『경북대본 소백산대관록 화전가』, 경진출판, 2016” 부록에 영인된 것을 인용하고자 한다.

닌 사회적 유대의 하나인 것이다.³⁰⁾ 그런데 사회적 유대는 이미 좋은 것이라 공인된 어떤 것을 향해 서로 공유된 지향을 중심으로 응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유대의 한 형태인 가족이 행복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가족을 좋다고 여기는 정향을 다수가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나아가 다수가 공유하는 정향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가족은 각 구성원에게 충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행복을 약속한다.³¹⁾

인용문은 <덴동어미화전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불출문외(不出門外)”, 즉 집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말을 통해 규방 안에 머물며 살림을 도맡아야 했던 조선 후기 부녀자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에게 화전놀이는 “소풍”과 다름없는 일이며 여자로서 흥겹게 놀면서도 체모를 지킬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다시 말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여겨지는 대상이다. 아울러 이러한 화전놀이에 충실히 임하고자 저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마음이 큰 부인은 가루한 말을, 마음이 작은 부인은 가루 반 되를 준비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와 지향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구성원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회적 유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열일곱살 청춘과여 나도 갖치 놀너 가지 // 나도 인물 좃컨만 단장홀
마음 전여 읍서 // 짜나 읍시 셔슈호고 거친 머리 디강 만자 // 늦비여乙 실적
꼬자 눈섭 지위 무잇허리 // 광당목 반물치마 싯똥 읍는 흰저고리 // 흰고름乙
다라 입고 전의 입던 고장바지 // 디강 디강 슈슈하니 어련 무던 관기차네

30)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49~154쪽.

31)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위스 편(2015), 앞의 책, 68; 72쪽.

[2] 그 중에도 텐동어미 만나게도 잘도 노라 // 춤도 춤며 노리도 하니 우습
소리 낭자흔디 // 그 등의도 청춘과여 눈물 큰물 귀귀하다 // 흔 부인이 이른
마리 조은 풍경 존 노름의 // 무슨 근심 더단히셔 낙누한심 웬일이요 // 나건으
로 눈물 싸고 너 사정乙 드러보소 <텐동어미화전가>

열일곱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청춘과부가 화전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나 그곳에서 텐동어미를 마주치는 것은 정동적 사건 가운데 하나일 수 있
다. [1]은 청춘과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고, [2]는 마침내 텐동어미와
대면하는 장면이다. 청춘과부는 자기도 같이 놀러 간다면서 화전놀이에 나
서지만, 다른 여인들과 달리 곱게 단장하지 않는다.³²⁾ 떠나 없게 세수하고
거친 머리 대강 만지는, 되는 대로 수습하고 개의치 않는 모습을 통해 과부
로서의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
런데 텐동어미와 처음 만나는 장면은 눈물에 콧물이 뒤범벅된 생리 현상으
로 묘사된다. 모처럼 경치 좋은 곳으로 나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웃음소
리가 낭자할 정도로 모두가 신나게 노는 상황에 부딪히자, 여자로서의 흥
취와 체모가 보장될 것이라 여겼던 기대와 달리 강렬한 긴장 상태에 직면
한다.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한데, 자신만 비참하고 불행하게 여겨진 것으
로 해석된다.

청춘과부는 예기치 못한 긴장 상태에 직면하여 과부로서 그 용모와 행동을
제약하던 의식의 통제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긴장 상태를
눈물과 콧물 등 신체적 반응을 통해 재현한 것은 청춘과부가 겪은 관계의
충돌을 낱것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청춘과부의 눈
물 콧물이 당황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그들은

32) 이와 같은 차이는 화전놀이가 표면적으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삶이 얼기설기 엮여 있는,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개별성이 내포된 것임을 시사한다. 박상영, 「<텐동어미화전가>의 중층적 담론 특성에 관한 일고」,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2017, 343쪽.

이렇게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이 그리 대단한가 하고 묻기에 이른다. 청춘과부의 눈물과 콧물이 다른 사람의 물음을 이끌어 낸 것이며 다른 이들은 상대의 슬픔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려는 마음을 던지지 드러낸 것이다.³³⁾ 한편, “혼 부인”의 이 물음은 청춘과부가 자신의 과거를 소화하며 비-의식적 긴장 상태를 언어로 옮기는 계기가 된다.

섬섬한 마음 둘 디 읊서 이리저리 지든 차의 // 화전노름이 좃타 흐고 심회乙
 조금 풀가 흐고 // 잔니乙 짜라 참에하니 축쳐감창 뿐이로서 //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듯나니 족족 한심일세 // 천하만물이 씩이 잇건만 나는 웃지 씩이 읊
 나 // 시 소리 드러도 회심하요 쫓 편걸 보으도 비창하니 // 인고 답답 니 팔자
 야 웃지 하여야 조홀 게나 //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웃지 홀고
 <텐동어미화전가>

사연인즉 열네 살에 한 살 아래의 남편과 혼인했으나 남편이 삼 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남편을 잊지 못하여 서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이어서 청춘과부는 그 설움을 달랠 길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화전 놀이가 좋다는 말을 듣고 자네(“혼 부인”)를 따라와 심회를 풀어 볼까 했지만, 가는 곳마다 도리어 슬픈 생각만 일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이렇듯 답답한 자기 신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맥락에서 청춘과부는 개가를 딱 한 번 언급한다. 인용문에 보이듯, 개가를 하려니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하지 않으려니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개가 자체에 관한 깊은 고민을 토로한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물론 개가가 지닌 당대의 함의를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에서는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는 자기 삶에서 비롯한 내적 갈등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33) 박혜숙 편역, 『텐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33쪽.

청춘과부가 말을 마치자 덴동어미는 “가지 마오 가지 말오 // 제발 적선 가지 말게”라면서 청춘과부의 개가를 만류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술회하기에 이른다. 비로소 덴동어미가 겪은 고난과 극복의 서사가 생생하게 펼쳐지는데, 여기에 그려진 덴동어미의 삶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휩쓸려 이리저리 나부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이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어떻게든 생을 지속했던, 주변 사람의 도움과 위로에 힘입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으나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덴동어미의 생애는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신체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예측할 수조차 없는 방향으로 이행과 변이를 겪은 관계 속의 삶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니 혼 번 못 잘 살고 니 신명이 그만일세 // 첫지 낭군 죽乙 썩에 나도
 혼가지 죽어거나 // 사더리도 슈절하고 다시 가지나 마라더면 // 산乙 보아도
 부스럽잔코 저 시 보아도 무렵잔치 // 사라 싱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귀로다 // 나도 슈절만 흐여더면 열여각은 못 세워도 //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상하게는 생각할 걸 // 남이라도 욕할 게요 친척 일가들 반가 흥가

<덴동어미화전가>

그런데 자기 술회가 끝날 즈음 덴동어미의 어조가 사뭇 달라지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니 혼 번 못 잘 살고”라는 진술에서 드러나듯 덴동어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부끄럽고 염치없게 잘못 산 삶이라 규정한다.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거나 살더라도 수절해야 했는데 수절을 지키지 못하고 개가하는 바람에 아무도 반기지 않고 남들이 욕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모색하던 예전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열여각”이 표상하는 규범적 가치에 얽매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다시 말해 남의 칭찬과 욕을 의식하느라 열

심히 살았던 지난 세월마저 부정하는 안타까운 면모만이 남아 있다. 이 시점에 이르러 덴동어미의 정동적 삶은 기억과 사고에 의해 재편되어 순절이라는 가치에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칭찬”과 “욕”이라는 시어는 개가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춘과부에게 개가의 문제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자기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번민과 대응의 문제였다. 그러나 덴동어미에게 개가의 문제는 이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규범적 판단의 문제가 되었다. 급기야 그녀는 “고약흔 신명은 고약하고 고싱홀 팔자는 고싱히지 // 고싱디로 홀 지경인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마지 // 그른 사람 될 지경의는 오른 사람이나 되지 그려 // 오른 사람 되어 잇서 남의게나 칭찬 듯지”라고 말하는 데에 다다른다. 한번 고생한 팔자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며 변화와 미래를 봉쇄하는 인식과 어차피 고생할 바에는 남의 칭찬을 듣는 옳은 사람이 되도록 개가하지 말고 수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의식은 다음에 나타날 것과 나타나지 않을 것을 조건 짓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배제된 무엇이 나타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³⁴⁾ 이 논의에 따르면 반복된 실패의 경험과 그에 따른 변용은 사유의 대상이 되었고 개가는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할 옳지 않은 무엇으로 재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의 이러한 작용은 정동적 사건을 언어화된 코드 속에 도입하여 도주선, 즉 변화와 이행의 잠재성을 봉쇄하고 일정한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 그것을 강제하는 포획의 논리를 따른다.³⁵⁾ 그렇

34)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 - 위협의 정치적 존재론」, 멜리사 그레 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2015), 앞의 책, 125쪽.

3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2 -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797쪽.

지만 개가가 청춘과부의 삶에 어떠한 변용도 이루어 내지 못할 것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덴동어미는 경험의 재편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관념을 바탕으로 청춘과부의 미래를 재단한다. 다시 말해 ‘수절-옳음/개가-그림’이라는 코드에 비추어 청춘과부의 선택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덴동어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춘과부 같나 하면 양식 싸고 말일나니 // 고성 팔자 타고 나면 열변 가도 고성일니”. 고생할 팔자를 타고난 탓에 열 번을 개가 하면 열 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바,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며 말리겠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아직 피지도 못한 청춘과부의 인생은 고통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고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삶으로 고착된다. 반드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듯이 말하며 개가를 금하는 덴동어미의 진술은 자신의 과거를 청춘과부의 미래에 덧씌우는 것이 아닐까.

이팔청춘 청성더라 니 말 듯고 가지 말게 // 아모 동니 화령딕은 시물 허나의
 혼자 되야 // 단양으로 갖다더니 겨우 다섯 달 사다가서 // 제가 몬져 죽어시니
 그건 오이려 낫지마는 // 아무 동니 장임딕은 갓 시물의 청상되여 // 제가 춘광
 乙 못이겨서 영춘으로 가더니만 // 못실 병이 달여 드러 안질빙이 되야다디
 // …(중략)… // 역역가지 생각흐되 기가 히서 잘 되나니는 // 빅익 하나 아니
 되니 부디 부디 가지 말게 // 기가 가서 고성보다 수절 고성 호강이니 // 슈절
 고성 흐난 사람 남이라도 귀이 보고 // 기가 고성 흐는 사람 남이라도 그르다니

<덴동어미화전가>

청춘과부를 향하던 전언은 여기에서 “이팔청춘 청성” 모두를 향하여 보편화된다. 아울러 그 끝에서 개가는 곧 불행으로 형상화된다. “아모 동니 화령딕”은 개가한 지 다섯 달 만에 죽었고 “아무 동니 장임딕”은 개가한 뒤에 앓은뱅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 말에는 개가하는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 혹은 경고가 담겨 있다. 반대로 말하면

수절을 지키는 것만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개가하지 않고 수절을 지키는 일은 화전놀이라는 사회적 유대 내에서 공유된 정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유된 정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유대의 흥을 깨는 “정동 소외자”가 될 것이다.³⁶⁾ 그리고 정동 소외자는 불행을 강제 받게 마련이다. 청춘과부 또한 강제된 불행에 결박되는 것이 아닐까.³⁷⁾

청춘과부는 덴동어미의 설득에 동조하며 “봄 춘자 노리”를 부르고 “꽃 화자 타령”을 함께 즐기게 된다. 그런데 청춘과부의 반응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면이 있다. “안자 우든 청춘과부 황연디각 씨달나서 // 덴동어미 말 드르니 말씀마다 기기 오리”. “황연디각” 깨닫는 것도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덴동어미의 말이 모두 옳다고 하는 데서는 “눈물 콘물 귀췌호”던 처음의 그 정동적 상태가 완전히 소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말이 옳다고 말할 따름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춘과부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는 상징계의 질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동을 억압하고 사회적 유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자기 삶에서 비롯한 설움과 혼란을 충분히 존중받고 공명하는 가운데 해소했다고 할 수 있을까.

덴동어미가 겪은 고난과 극복의 서시는 분명 세상에 던져진 힘겨운 삶을 위로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그 술회가 끝난 뒤 다 함께 부르고 즐기는 “봄 춘자 노리”와 “꽃 화자 타령”은 집착과 욕망을 벗어 던진 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드러내는바, 덴동어미가 설파한 운명론의 의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 세대 앞선 덴동어미의 서시는 청춘과

36) 사라 아메드(2015), 앞의 책, 95쪽.

37) 박상영은 화전놀이 자체는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탈주의 욕망으로 충만하지만, 유가적 굴레를 벗어나는 일의 가혹함은 여성을 ‘정질’이라는 이념으로 속박한다고 논한 바 있다. 이렇듯 탈주의 욕망과 속박의 굴레가 혼재하는 노래가 바로 <덴동어미화전가>라고 보았다. 박상영(2017), 앞의 논문, 368쪽.

부가 느끼는 감정도 이미 겪어 본 것이라 다 알겠노라 말하는 논리로, 청춘과부가 살아야 할 미래도 어차피 살아 봤더니 다 소용없노라 말하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렇지만 정말로 똑같은 삶, 일치하는 감정을 상정할 수 있을까. 텐동어미가 건넨 말은 어디까지 위안이 되었을까. 대화의 끝에 청춘과부는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는가. 정동 개념은 똑같은 삶, 일치하는 감정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그것은 도리어 강제된 불행에 타인을 엮매는 논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이상과 같은 질문들로 우리를 이끈다. 본장에서 정동 개념에 비추어 청춘과부의 반응과 변화를 논의하려 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텐동어미화전기> 안에서 개가를 금하고 수절을 권하는 언술이 지닌 이질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래에는 <텐동어미화전기>의 작가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 가능성을 고증한 논의가 제출된 바 있다. 석창(石窓)이라는 호를 사용했던 구 향촌사족 출신의 남성이 작가라는 견해이다. 게다가 ‘텐동어미 서사’는 <텐동어미화전기> 이전부터 영주 지방에서 별도로 구전되던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논의는 “‘텐동어미 서사’에 작가의 ‘이념’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변형을 초래했는가,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고 각인되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³⁸⁾ 이로써 개가를 금하고 수절을 권하는 언술을, 텐동어미 서사나 그로 인한 깨달음, “봄 출자 노리”, “꽃 화자 타령” 등 텍스트 내의 다른 요소와 구분하여 고찰할 가능성이 마련된다.

『소백산대관록』의 저자가 <텐동어미화전기>를 지은 것인지, 필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텐동어미의 긴 술회담을 빠짐없이 기록하거나 필사한 데에는 만만치 않은 목적의식이 있었을 것임을 지적한 논의가 있다.³⁹⁾ “개

38)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기』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71쪽.

39) 김석희, 「주제적 관심을 통해 본 규방가사의 세계」,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시기문학』, 월인, 2009, 117쪽.

가만류(改嫁挽留)의 설득력”이 이 텍스트를 기록에 옮기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덴동어미는 언술 내용의 주체일 뿐이며, 그것은 언술 행위의 주체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⁴⁰⁾ 이 구분에 따르면 기존의 ‘덴동어미 서사’를 동일화의 논리 위에 얹어 놓음으로써 개가 금지라는 이념을 강변하도록 한 것은 언술 행위의 주체로부터 비롯한 한계였을 가능성이 포착된다. 그로 인해 청춘과부의 정동은 억압되고 그녀는 강제된 불행에 결박된다. 결국 <덴동어미화전가>는 여성들 사이의 수평적 연대 관계를 다룬 점에서 <훈민가>와는 출발점이 다르지만, 청춘과부의 정동을 제한하여 사회적 유대 안으로 포섭한 점에서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추동된 신체와 형언할 수 없음 : 사설시조 몇 수

사설시조가 조선 후기의 일상과 경험, 감각과 인식, 감정과 욕망 등의 문제를 다룬 갈래였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⁴¹⁾ 예를 들어 경계선상에 있는 유동적 욕망과 경계를 넘어 탈주하는 욕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기도 했고,⁴²⁾ 여성 화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맺는 관계들이 언어화된 결과로서 ‘수사적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⁴³⁾ 이를 비롯한 적지 않은 선행 연구는 사설시조에 재현된 신체, 관계 속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로 사설시조 중에서는 정동이 정향되는 양상을 보이는 <훈민가>나 <덴동어미화전가>와 다르게

40) 에밀 뵘베니스트,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2』, 김현권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125~142쪽.

41) 사설시조 연구서는 “박영민, 「사설시조의 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시가연구』 60, 한국시가학회, 2024”을 참고.

42) 이형태,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화사연구』 17, 민족문화사학회, 2000.

43) 고정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정동의 자율성, 즉 어떤 가치나 규범에 의해 정향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펼쳐지는 정동적 역량을 나타낸 텍스트가 발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되 정동의 자율성 측면에서 사실시조를 다시 읽을 여지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萬頃蒼波之水에 등등 씻는 부락금이 게오리들아 비슬금성 증경이 동당강성
너시 두루미들아
너 씻는 물 기피를 알고 등 씻는 모르고 등 씻는
우리도 늪의 님 거러 두고 기피를 몰라 흐노라 <청김#537>44)

흔 눈 멀고 흔 다리 절고 痔疾 三年 腹疾 三年 邊頭痛 內丹毒 다 알는 조고
만 샷기 개고리
一百 쉼 대자 장남게 게을을 제 쉬이 너겨 수로록 소로로 소로로 수로록 허위
허위 소습 뛰여 올라 안자 느리실 제란 어이실고 나 몰래라 저 개고리
우리도 새 님 거러두고 나중 몰라 흐노라 <청김#562>

청김#537은 “늪의 님”과의 관계를, 청김#562는 “새 님”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전자는 만경창과 너른 물에 등등 떠 있는 새들에 빗대어, 후자는 백오십 자나 되는 높은 나무를 기어오르는 새끼 개구리에 빗대어 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신체를 재현했다. 청김#537에 제시된 새들은 언뜻 보면 편안하게 유영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쉬지 않고 발을 허우적거리야 물 위에 떠서 유영할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새들을 향해 물 깊이를 알고 떠 있는지 모르고 떠 있는지 묻는다. 또한, 청김#562의 새끼 개구리는 “치질(痔疾)”이나 “복질(腹疾)” 등 온갖 병을 다 앓고 있는 조그맣고 병약한 몸으로 “수로록 소로로 소로로 수로록”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큰 나무를 기어오

44) 金天澤, 『靑丘永言』, 국립한글박물관 영인, 2017. 사실시조 원문은 이 책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고자 한다.

르지만,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내려올 일은 걱정도 하지 않는 새끼 개구리의 태도를 꼬집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도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점이고 우리도 나중 일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깊이도 모른 채 물 위에 떠 있듯 그 깊이를 알아서 “늪의 님”과 사귀는 것은 아니라는, 내려올 일에 개의치 않고 나무를 오르듯 나중 일을 대비한 채 “새 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인간이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 예상하지만, 근래의 과학은 인간이 꼭 그렇게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곧 계획과 의도에 앞서 뇌가, 뇌에 앞서 자율적·육체적 반응이 먼저 수행된다는 것이다.⁴⁵⁾ 이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의식은 몸에 반응한다는 것을, 그와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한 두 텍스트도 몸이 의식에 선행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체를 추동하는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청김#537에 포착된 새들은 물을 만나면 물 위를 유영할 따름인 존재이고, 청김#562에 포착된 조그마한 새끼 개구리는 큰 나무를 만나면 나무 위로 기어오를 따름인 존재이다. 다시 말해 세계, 혹은 다른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바로 신체를 추동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관계에 따라 추동된 신체는 때때로 예측할 수조차 없는 방향으로 이행과 변이를 겪기도 한다. 우리가 “늪의 님”이나 “새 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결말을 초래할지 그 끝을 알 수 있을까. 따라서 인용한 두 사설시조는 관계에 따른 신체 변용의 가능성, 즉 정동의 자율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늪의 님”과 “새 님”이 무엇을 뜻하는가, 외도의 대상을 말하는가, 아니면 짝사랑의 상대를 일컫는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45) 브라이언 마수미(2011), 앞의 책, 57쪽.

모른다.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변용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간파한 텍스트라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인간의 욕망 일반을 함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는 무한히 변용될 수 있는 그 잠재적 공존 상태를 제한하고 압축하는 정서의 논리에 익숙하다. 어떤 가치나 질서로 포섭되지 않는 무엇을 배제하고 나면 대상이나 사건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위에서 논의한 청감#537이나 청감#562를 해석할 때 외도의 대상이든 짝사랑의 상대든 “늬의 님”과 “새 님”의 정체를 단정한다면 물론 그 의미 작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으나 해당 텍스트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동적 사건을 언어로 고착하는 과정은 경험과 기억, 사고와 습관 등 이미 축적된 관념을 동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본디 규정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여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형태로 코드화하게 된다. 청감#537의 주제를 외도에 따른 불안으로 단정할 경우, 또 다른 읽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산 브라보니 白松骨이 썬잇거늘 가슴이 금즉혀여 풀덕 썬여 내듯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늘낸 벌식만정 에힐질 번 후패라 <청감#520>

인용문은 두꺼비와 파리, 백송골의 정체가 관심을 끈 텍스트이다.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 “파리=힘없는 백성, 두꺼비=중간 권력층/탐관오리, 백송골=고위층/외세” 등 현실에 실재하는 특정 계층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⁴⁶⁾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구도는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 즉 탐관오

46) 고정욱, 『교주 고장시조선주』, 김용찬 교주, 보고사, 2005, 242쪽.

리의 횡포와 수탈이 만연했던 현실에 대한 이해와 맞물리는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선 후기의 사회상에 대한 축적된 관념이 해석의 코드로 작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물론 상기 연구는 텍스트 해석에 비추어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의의가 있다. 다만 두꺼비와 과리, 백송골의 정체를 조선 후기에 존재한 특정 계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면 그 비판적 성찰의 효과를 보편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위 구도에 따르면 두꺼비는 악인의 형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두꺼비는 자신의 생존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과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는 것은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일 수 있고 “갯년산”에 뜬 백송골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자기방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따르면 두꺼비는 사뭇 진땀 나는 정동적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 해석된다. 두꺼비가 직면한 상황은 자기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타자와 마주친 위협적인 순간이고 욕망을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두엄 아래 자빠진 수치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꺼비의 몰골이 우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두꺼비의 형상을 횡포와 수탈의 이미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모쳐라 늘넨 널식만정 에혈질 번 흐괘라”라는 종장의 진술은 진땀 나는 정동적 사건에 대한 생생한 반응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혈이 진다는 시구를 단지 육체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위협과 수치로 점철된 상황에서 몸에 어혈이 지는 것은 마음에 어혈이 지는 것이기도 하다.⁴⁷⁾ 다시 말해 날랜 나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어혈이 질 뻔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백송골의 존재가 충돌하는

47) 벤 하이모어, 「뒷맛이 씹쓸한 - 정동과 음식, 그리고 사회 미학」,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2015), 앞의 책, 209쪽.

관계 속에서 이미 몸과 마음에 어혈이 졌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다만, 갑작스레 일그러진 자기 모습을 수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날랜 나이기에 이쯤에서 그쳤다며 허세를 늘어놓은 듯하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며 그 결과 더욱 우스워졌지만 도리어 그것은 의식을 거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반응일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감#520에 나타난 합리화를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본 최근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⁴⁸⁾ 다만, 세속의 세계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 군상에 대한 냉소가 드러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감추는 것은 모두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삶의 곡절 중 하나인바, 일방적으로 냉소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감#520이 유발하는 웃음은 세계 속에 던져진 신체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기도 모르게 일그러지곤 하는 인간을 향한 씩씩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웃음, 말로는 다 형언하기 어려운 미묘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두꺼비와 파리, 백송골 사이의 관계를 재현한 청감#520이 조선 후기에 존재한 특정 집단을 비판한 텍스트로 읽힐 뿐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일그러지곤 하는 보편적 인간을 성찰한 텍스트로 읽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논했듯 청감#520에 재현된 모든 것은 예기치 못한 것이며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위기를 맞닥뜨린 것부터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엄 아래 자빠지는 것, 갑작스레 일그러진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여 합리화하는 것, 그러한 두꺼비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게 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펼쳐질 따름이

48) 하운섭, 「인간 존재에 대한 사실시조의 시선 - <두터비 꼬리를 물고~>와 <님이 오마커늘~>에 대한 재해석 -」,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2021.

다. 마주히는 상대에 따라, 그리고 그와 맺는 관계에 따라 어떻게든 변용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신체를 재현함으로써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찌면 인간이기에 누구나 욕망에 사로잡혀 허우적댈 수 있다고 이야기한 텍스트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냉소하기도, 일방적으로 연민하기도 어렵다.

天寒코 雪深흔 날에 님 츠즈라 天上으로 갈 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곱뵈님뵈 님뵈곱뵈 천방지방 지방천
 방 흔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보선 버슨 발은 아니 스리되 념의온 가슴이 산득산득혀려라 <청갑#542>

이 사설시조는 임이 떠난 뒤 남겨진 여인의 신체를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雪深흔 날”, 즉 눈이 많이 내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날씨가 환기하는 것처럼 무엇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임은 어떤 존재인지, 임이 왜 떠난 것인지,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오로지 화자의 행동만이 묘사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닿을 수 없는 공간인 “天上”을 향하는 것으로 볼 때 임이 어떤 이유로 자신을 떠났든,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 어떻게 지내고 있든, 임에게 닿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구체적인 목적도, 별다른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일단 어디로든 향하는 화자의 모습이 포착된다. 화자에게는 임과의 이별이 그만큼 강렬한 정동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도 몸과 의식이 분리되지 않은, 살아있는 신체로서 화자의 모습이 포착된다. 몹시 춥고 눈까지 내리는 날 임을 찾기 위해 천상으로 가는, 신발도 벗어서 손에 쥐고 버선도 벗어서 품에 품고 단숨에 오르는 화자의 행위는 어서 빨리 임을 찾았으면 하는 간절함과 다급함을 함축한다. 종장

에서는 “허위허위” 올라간, 즉 그토록 다급하게 천상에 오른 찰나를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천상에 닿는 순간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정동적 사건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화자는 그토록 힘겹게 천상에 올랐으나 과연 임은 그곳에 있을까, 있다면 혼자 있을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화자 자신을 반겨줄까, 마음이 식어서 외면하지는 않을까, 아니 애당초 그곳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어떤 물음에도 명확히 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재현할 뿐이다.

“산득산득”이라는 의태어는 그 미결정의 상태를, 즉 입을 찾아서 가슴이 뺨 뚫린 것도 아니고 입을 찾지 못해서 가슴이 꼭 막힌 것도 아닌, 천상에 오르는 찰나의 정동, 즉 무엇도 예견할 수 없는 데서 비롯한 신체적 변용을 잘 담아낸 시어이다. 다시 말해 버선 벗은 발은 시리지 않은데 여민 가슴이 “산득산득”하다는 표현은 정서적 귀결을 이루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긴장과 예견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한 신체적 반응을 재현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더 많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시조 종장에 활용된 음성상징어는 이와 같이 정서적 귀결을 잠시 유보한 채 정동된 신체의 형언할 수 없는 상태를 펼쳐 놓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청김#542를 굳이 염정(艷情)이나 사별이라는 특정 코드로 단정할 수 있을까.

이상의 논의는 사실시조에 대한 해석이 특정한 코드에 기반을 둔 한정된 논리를 따르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나 사실시조에 포착된 정동적 국면은 그러한 몇 가지 코드로 고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점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시조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전근대/근대’, ‘양반/서민’, ‘남성/여성’ 등의 이분화된 코드가 해석의 기제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주목하면 다른 하나가 발견되고, 어느 한 편이 우세한 듯하면 다른 한 편이 반론을 내는 형국이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한 채 흐지부지된 면이 있다. 아마도 사설시조가 다양한 신체와 욕망의 마주침, 욕망의 발산과 제한 및 그에 대한 신체의 반응 따위를 분별없이 드러낸 갈래였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되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단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동 연구는 한정된 체계와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신체와 욕망이 이루는 관계와 그 관계가 일으키는 정동 자체에 관심을 두자고 제안한다. 관련하여 사설시조의 원류라 여겨지는 『청구영언』 소재 「만횡청류(蔓橫淸類)」를 단일한 갈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근래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횡청류」는 18세기 초 여항(閭巷)에서 널리 향유된 잡다한 가창물의 집성이라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논의는 「만횡청류」의 유래를 도시 가요로 폭넓게 재정립하는 데까지 이어진다.⁵⁰⁾ 그렇다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신체와 욕망이 얽히고설킨 관계를 재현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코드에 기반하여 한정하는 논리는 그 다양성과 유연성을 이분화된 몇 가지 관계나 고착된 몇 가지 정서로 포획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지닌 관념의 총체에서 비롯했을 것이므로 우리의 연상과 기억, 습관과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각과 감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시조의 정동을 끊임없이 다시 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정동적 읽기와 부단한 다시 쓰기

본 논문은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도 활발해진 정동 연구가 시조나

49) 신윤경, 「『진본 청구영언』 소재 만횡청류의 존재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0) 신경숙, 「『청구영언』과 사설시조」, 『한국시가연구』 58, 한국시가학회, 2023.

가사를 다시 읽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동 연구는 관계 속의 삶과 정동의 자율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그것을 논의할 만한 단서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훈민가>와 <덴동어미화전가> 그리고 사설시조 몇 수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텍스트에 남은 정동의 자취를 밟아가려 한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조·가사 연구에서 정동적 읽기가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부단하게 다시 쓰려는 노력의 필요성과 의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훈민가>는 강원도 관찰사였던 송강 정철이 이상화된 신체의 표정과 목소리, 자세와 움직임 등을 강원도 백성과 공유하려 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동 전염에 기반하여 신체들 사이의 동화를 유도하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수렴하여 공동체 감각을 형성하려는 전략이 내재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백성을 관계 속에서 사유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유교 윤리에 의해 정향된 정동은 그 무한한 잠재성이 봉인된, 다시 말해 공동체 내에서 허용된 정서를 재생산할 뿐이다.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까지 관심이 닿는 텍스트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훈민가>의 의의는 시조라는 갈래가 정동적 효과를 일으키는 기제로 인식된 사실을 환기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놀이라는 사회적 유대 안에서 청춘과부가 마주친 정동적 사건을 다루었다. 청춘과부는 여자로서의 흥취와 체모가 보장될 것이라 여겼던 기대와 달리 눈물에 콧물이 뒤범벅된 강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덴동어미는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극복의 서사를 규범과 기억에 따라 재편함으로써 ‘수절-옴음/개가-그름’이라는 코드를 제시한다. 이로써 청춘과부는 강제된 불행에 결박되었고 그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 재단되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가 공유된 정향에 동

조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포획하는지 보여 준다. 이렇듯 <덴동 어미화전가>는 사회적 유대의 양면성, 특히 청춘과부의 정동을 억압하는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의 일상과 경험, 감각과 인식, 감정과 욕망 등의 문제를 다룬 갈래로 논의되었다. 그중에는 세계와의 관계, 즉 다른 신체와의 마주침에 의해 추동된 신체의 변용을 재현한 텍스트가 적지 않다. 그런데 해당 텍스트는 의식에 선행하는 몸이나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등을 순간적으로 펼쳐들 뿐이어서 그 안에 포착된 신체와 정동은 무엇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는 어느새 ‘전근대/근대’ 등 이분화된 코드에 익숙해졌지만, 사설시조에 나타난 정동적 국면이 과연 그러한 코드로 고착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설시조에 빈번히 활용된 음성상징어는 정동된 신체의 형언할 수 없는 상태를 펼쳐 놓는 것이라 주목된다. 이로써 다양한 신체와 욕망의 마주침, 욕망의 발산과 제한 및 그에 따른 신체적 변용 등을 더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정서적 읽기와 정동적 읽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을 더듬는 독해를 정서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서는 이행과 변이를 봉인하는, 분명히되 고착되는, 틀에 박힌 어떤 관념으로 사회적 질서에 준하여 코드화하고 언어화하는 논리를 따른다. 다시 말해 정서의 논리는 경험과 습관, 기억과 사고 등에 근간을 둔 관념의 총체를 동원하여 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무엇을 배제하려 한다. 이러한 읽기는 정서적인 것에 이름을 붙여 그것을 공유하는데, 이로부터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향이 발생하며 그 정향을 중심으로 다른 정서가 동화된다. 따라서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혼란한 것을 단순하게 할 수도 있으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도, 기존의 체계와 질서를 더욱 비대하게 할 수도 있다.

반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쓰고자 하는 독해를 정동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정동은 마주침이 주는 강렬함, 멈출 수 없는 긴장, 신체가 지닌 능동성, 삶의 불확정성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곧 관계 속의 삶과 정동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무한한 변용을 추구하는 잠재성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읽기는 체계와 질서 안으로 포섭되지 못한, 경계 너머에서 유동하고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쓴다. 나아가 억압되어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무엇과 마주하는 순간을 고대하면서 매 순간 다시 읽고 다시 쓰려 노력한다. 어떤 정서가 가능할지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적 국면 자체에 몰두하면서 그 잠재성을 열어젖히는 읽기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동적 읽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서론에서 검토한 것처럼 정동은 비의식적인 것이며 붙잡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기술 가능한 경험이 되거나 전사하여 분석할 수 있는 언어, 혹은 종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정동 그 자체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학이 “이미 매개된 현실을 다시 비추는 이미지”라면 문학 연구는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재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어쩌면 정동 그 자체에 영원히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⁵¹⁾ 우리가 <텐둥어미화전가>에 등장하는 청춘과부의 정동을 다 알아서 제대로 썼다 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정동 연구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정동적 마주침의 역사이며 이로써 우리는 정동의 자취를 밟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지적을 더욱 깊게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⁵²⁾

이에 부단히 다시 쓰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물론 온전히 닿을 수는 없어도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고 지시할 수는 있다. 곧 인지된 정서가 아니라서

51) 산드라 모야노-아리자, 「정동 이론과 문학-예술 : 재현 사이와 재현 너머」, 알리 라라 편(2025), 앞의 책, 185쪽.

52) 알리 라라(2025), 앞의 책, 31~38쪽.

무엇이라 단정하지는 못해도 어떠한 떨림이 있다고 가리킬 수는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동적 글쓰기는 완결된 해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시의 연속을 지향해야 한다. 끊임없이 다시 쓰면서 더 섬세한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무엇에 닿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정동적 마주침의 역사를 생성해 나가는 경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이렇듯 서둘러 결론짓지 않고 부단히 다시 읽고 다시 쓰면서 텍스트에 나타난 그 미분화된 정동, 아직 명명되지 않은 떨림을 포착하려 한다면 시조와 가사를 새롭게 볼 단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동 연구가 시조나 가사를 다시 읽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던 본 논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 우선 정동 연구는 공동체적 규범과 가치가 허용하는 정서, 즉 정향된 정동을 그 무한한 잠재성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관찰사 백성이라는 상하 관계나 화전놀이라는 사회적 유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동체적 규범과 가치로 포섭되지 않거나 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즉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존재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게 한다. 이로써 <뎃동어미화전가>에 등장하는 청춘과부나 사설시조 몇 수에 포착된 인간 군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된다. 두 성과는 모두 사회적 질서에 준하여 형성된 코드나 언어를 성찰하면서 삶이 지닌 다양성과 가능성에 주목하려는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동적 읽기와 부단한 다시 쓰기는 억압되고 숨겨지고 사라진 것에 점근(漸近)하는 토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 재현된 다양한 삶과 역동적 관계를 포착하여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향되지 않은 정동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산득산득”과 같은 표현에 반영된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 언어를 생성할 수 있다. 물론 온전히 기술할 수는 없겠으나 부단히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그 떨림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동적 읽기와 쓰기를 지속한다면, 시조와 가사를 해석하는 지평도 점차 확장될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이 성행하면서 통계와 데이터로 드러나는 지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읽고 쓰기는 계량화되지 않는 인간 삶의 본질적 층위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본 논문은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의 텍스트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시조나 가사의 갈래 특성과 각 텍스트가 창작되고 향유된 역사적 맥락, 텍스트를 둘러싼 소통 관계 및 텍스트 자체의 언술 특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정동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더욱 폭넓게 섭렵하는 동시에 <덴동어미화전가>와 같은 개별 텍스트나 사설시조와 같은 특정 갈래에 주목하여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다양한 텍스트나 갈래로 논의를 확장하여 이와 같은 연구가 지닌 보편적 의의를 규명해야 할 책임도 있다. 정동적 읽기의 필요성과 의의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天澤, 『靑丘永言』, 국립한글박물관 영인, 2017.
 이정옥 주해, 『경북대본 소백산대관록·화전가』, 경진출판, 2016.
 鄭 澈, 『松江歌辭』(李選本), 대제각 영인, 1988.

2. 논저

- 고정옥, 『교주 고장시조선주』, 김용찬 교주, 보고서, 2005, 1~293쪽.
 고정희, 「<된동어미화전가>의 미적 특징과 아이러니」,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2003, 313~341쪽.
 고정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199~222쪽.
 고정희, 「더 늙은 여성의 치유: <텐동어미화전가>와 『브루스터플레이스의 여자들』의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61~96쪽.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151~166쪽.
 김대행, 「『텐동어미 화전가』와 팔자의 원형」,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하)』, 태학사, 2000, 324~341쪽.
 김석희, 「주체적 관심을 통해 본 규방가사의 세계」,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시가문학』, 월인, 2009, 101~134쪽.
 김열규, 「한국시가의 서정의 몇 국면」, 『동양학』 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2, 79~103쪽.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 <된동어미 화전가> -」,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763~773쪽.
 김태웅, 「위계담론으로서 <훈민가>의 전승과 유통 방식」, 『인문과학』 90,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283~314쪽.
 박경주, 「<된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변화 양상 고찰」,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9, 167~186쪽.
 박상영, 「<텐동어미화전가>의 중층적 담론 특성에 관한 일고」,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2017, 333~379쪽.
 박영민, 「정철 시조의 담화 특성과 전승 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199쪽.

- 박영민, 「사설시조의 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시가연구』 60, 한국시가학회, 2024, 107~157쪽.
-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기〉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23~145쪽.
- 박혜숙 편역, 『텐동어미화전기』, 돌베개, 2011, 1~175쪽.
-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기」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45~171쪽.
- 신경숙, 『『청구영언』과 사설시조』, 『한국시가연구』 58, 한국시가학회, 2023, 251~277쪽.
- 신윤경, 「『진본 청구영언』 소재 만횡청류의 존재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11쪽.
- 오영창, 「장르지식으로서 정철 <훈민가>의 진술방식 연구」, 『새국어교육』 142, 한국국어교육학회, 2025, 283~314쪽.
- 이재준, 「〈텐동어미화전기〉에 나타난 세계인식과 그 의미」, 『한국문학과예술』 2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109~145쪽.
- 이형대,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학사연구』 17, 민족문학사학회, 2000, 173~197쪽.
- 정홍모, 「〈텐동어미 화전기〉의 세계인식과 조선 후기 몰락 하층민의 한 양상」, 『어문논집』 30, 안암어문학회, 1991, 81~99쪽.
- 조강석, 「정동적 문학 읽기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307~328쪽.
- 주재우, 「설득의 수사학으로 <텐동어미화전기〉 읽기」, 『청람어문교육』 86, 청람어문교육학회, 2022, 97~121쪽.
- 최은숙, 「〈텐동어미화전기〉의 연구성과 및 현대적 의미」, 『국학연구논총』 18, 태민국학연구원, 2016, 127~154쪽.
- 하운섭, 「인간 존재에 대한 사설시조의 시선 - <두터비 폭리를 물고~>와 <님이 오마커늘~>에 대한 재해석 -」,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373~402쪽.
- B.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2007, 1~391쪽.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1~608쪽.
- 브라이언 마수미, 『가상계 -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조성훈 옮김, 갈무

리, 2011, 1~460쪽.

안토니오 다마지오, 『느낌의 발견』, 고현석 옮김, 아르테, 2023, 1~543쪽.

알리 라라 편, 『정동 연구 지도 제작』, 권명아 옮김, 갈무리, 2025, 1~368쪽.

에밀 벵베니스트,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2』, 김현권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1~518쪽.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옮김, 민음사, 2001, 1~239쪽.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2 -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1~567쪽.

캐스 브라운·개빈 브라운·제이슨 림 편, 『섹슈얼리티 지리학』, 김현철 외 옮김, 이매진, 2018, 1~448쪽.

ABSTRACT

Affective Reading and Continuous Rewriting of *Sijo and Gasa*

Park, Yeong-min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examining whether affect research, which has been active in Korea since the 2010s, can contribute to re-reading *sijo* and *gasa*. Affect theory rejects the transcendental dualism of mind and body, and focuses on the body that transforms while giving and receiving influences in relationships. Affect is a concept that evokes the intensity of encounters, unstoppable tension, the agency of the body, and the indeterminacy of life, distinguished from emotion, which selectively activates and fixes affect based on experience, memory, thought, and habit.

The analysis of *Hunminga* reveals that Songgang Jeong Cheol reproduced and shared with the people of Gangwon Province bodies in relationships, such as children respecting elders, farmers helping each other, and relatives caring for one another. This was a strategy to induce synchronization among bodies through affective contagion and form a sense of community.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that the orientation was restricted by Confucian ethics, failing to fully capture the infinite potentiality and indeterminacy of affect.

Dendongeohmihwajeon-ga deals with the affective events experienced by a young widow within the social bonds of *hwajeon-nori* (flower pancake outing). The pre-conscious state of tension expressed through tears and mucus vividly reproduces the collision of relationships. However, as Dendong mother's experience is reconstructed into the code of 'chastity-right/remarriage-wrong,' the young widow's affect is suppressed and her future is forced into unhappiness. Through the logic of homogenization, the ideology prohibiting remarriage operates, revealing the problem that fixed norms are prioritized over the

indeterminacy of affect.

The analysis of Saseol-sijo captured aspects where the body moves before consciousness and transformations according to relationships. While previous studies interpreted Saseol-sijo with limited logic based on dichotomous codes such as 'pre-modern/modern,' 'yangban/commoner,' and 'male/female,'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focus on the dynamism of relationships and the indeterminacy of affect.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while emotional reading is based on fixed notions that seal off transition and variation, affective reading affirms the potentiality for infinite transformation and seeks what lies beyond system and order.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read sijo and gasa and explore clues for new readings.

Key Words Affect, affective reading, Hunminga(訓民歌), Dendongeohmihwajeon-ga, Saseol-sijo(辭說時調)

논문투고일: 2025.10.22.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

